



▲임 정 기



▲신 좌 섭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의사상

임 정 기^{1,2*} · 신 좌 섭^{2,3} | ¹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²한국외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장 협회, ³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Physicians for 'here and now'

Jung-Gi Im, MD^{1,2*} · Jwa-Seop Shin, MD^{2,3}

¹Department of Rad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²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³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Jung-Gi Im, E-mail: imig@snu.ac.kr

Received January 11, 2012 · Accepted January 20, 2012

Three reports published in the 20th century have functioned as standard guidelines for medical education: the General Professional Education of the Physician report by th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Tomorrow's Doctors from the General Medical Council of the UK, and Korean Physicians for the 21st Century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At the moment, a great deal of innovation is occurring in Korean medical societies. However, these innovations bring to mind the parable of the blind men and an elephant in which each blind man feels part of an elephant with his hands and misunderstands the elephant's nature because he cannot see the whole animal. In the same way, there is no comprehensive picture of 'what is the good doctor' for here and now. Korean society is changing more and more rapidly in the 21st century due to influences such as an influx of immigration and resulting multiculturalism. We could not predict these changes even in the 1990s, when Korean Association for Medical Colleges was preparing its report. In light of a dynamically changing society, we must review and revise our definitions of a 'physician for here and now' every ten or twenty years.

Keywords: Good doctor; Medical education; Societal needs; Needs assessment

서론

21세기 의사상에 대한 연구는 일찌감치 20세기말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는 1984년 General Professional Education of the Physician 보고서, 즉 '21세기 의사상(Physicia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1]을 펴냈고 영국국가의학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는 1993년 '미래의사(Tomorrow's Doctor)'를 펴냈다[2].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가 '21세기 한국의학교육계획: 21세기 한국 의사상'을 펴낸 바 있다. 이 같은 연구들 특히 '한국 의사상'[3]을 모색한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의 연구는 오늘날 우리 의학교육에 훌륭한 지침이 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우리가 상상했던 21세기의 한국과 오늘 의 실제 현실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오늘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에서 100년 단위로 바람직한 의사상을 찾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예를 들어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가 21세기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던 1990년대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현상이다.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전략기획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10~20년 단위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에 맞추어 1~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추세이다. 바람직한 의사상 역시 최소한 10년 단위로 갱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하는 것이 이 시론의 문제의식이다. 21세기가 12년 지난 지금의 사회는 우리가 20세기에 상상하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앞으로 10년 후 또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우리는 바람직한 의사상을 갖고 있는가?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최근 몇 년간 '바람직한 의사'를 앞세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왔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의학교육 학제개편 정책, MD-PhD 제도,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의사면허 갱신제도 도입의 모색, 의사국가시험 의료윤리 문항 도입 등

이 그 예이다. 각 프로젝트는 모두 '좋은 의사, 바람직한 의사'를 표방하고 있고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뭔가 허전하다. 바람직한 의사를 지향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바람직한 의사의 총체적인 그림이 각 프로젝트로부터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마치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각 프로젝트는 '꼬리, 다리, 귀, 코' 등 코끼리의 어느 한 측면만을 더듬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프로젝트는 당연히 암묵적인 '바람직한 의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 어떤 의사가 바람직한 의사인지 관계자들에게 물으면 각자 떠올리는 그림에는 큰 차이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Peter Senge [4]의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가 가르쳐 주듯이 총체적인 그림이 없이 이것저것을 따로 건드리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결과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의사상에 대한 이견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특히 확연히 드러난다.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사상'에 따라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이견은 기초와 임상 간에 특히 뚜렷하다. 또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료한 공감대나 합의가 없다.

바람직한 의사상을 도출하기 위한 접근

'어떤 의사가 바람직한 의사인가'하는 질문에 답하는 방법에는 사회(수요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외부적 시각과 의사 집단의 입장을 중시하는 내부적 시각이 있다. 외부적 시각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므로 당위적이고 강력하지만 의사 집단의 비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반면에 내부적 시각은 집단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므로 협조해질 우려가 있고 집단 내 여러 세력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형성되어 알맹이가 빠지기 쉽다는 문제가 있지만 집단의 비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에게는 더 현실감과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어떤 의사가 바람직한 의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외부적 시각과 내부적 시각이라는 2개의 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얻어져야 한다. 바람직한 의사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동시에 의학의 발전과 의사 집단의 지위향상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적 시각과 내부적 시각을 고르게 반영한 의사상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집단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계에 시급한 일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제 한국 의사 사회는 '입시지옥, 왕따,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지평에 적합한 바람직한 의사가 누구인지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바람직한 한국의사 꿈꾸기(Dream the Korean Doctor)' 프로젝트를 대한의사협회, 정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가 합심하여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결 론

예나 지금이나 환자와 의사가 존재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고통과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의사의 역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신 의학지식과 술기를 연마하는 것,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의사상일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과 덕목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사상을

찾는 일은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의사상은 학부 교육, 졸업 후 교육, 평생 교육의 목표, 의사의 행동 준칙, 의사의 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의사상'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과거와 같이 100년 단위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0년 혹은 20년 주기로 외부적 시각과 내부적 시각을 두루 반영하여 바람직한 의사상을 재정립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기민하게 부응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좋은 의사; 의학교육; 사회적 요구; 요구사정

REFERENCES

1. AAMC Project Panel on the General Professional Education of the Physician and College Preparation for Medicin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Physicia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he GPEP report.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1984.
2. General Medical Council. Tomorrow's Doctor: outcomes and standards for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Internet]. London: General Medical Council; 2009 [cited 2012 Feb 1]. Available from: http://www.gmc-uk.org/TomorrowsDoctors_2009.pdf_39260971.pdf.
3.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Medical Education Plan for the 21st Century Korea: Korean Physicians for the 21st Centur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2000.
4. Senge PM. The fifth discipline: the art and practice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New York : Doubleday/Currency; 1990.